

37년 기다림...“내년엔 꼭 가족품 돌아오길”

암매장 발굴조사 해 넘겨...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유해 못찾아

5·18재단 “교도소 발굴 계속”...행불자 가족 “희망 잃지 않을 것”

“올해는 유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습니다. 지난 37년 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기다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조카 김기운(당시 송원고 2년·17세)군을 잃었던 김형태(70)씨는 27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협심이 강했던 기운군은 1980년 5월 21일 “시민·선배들이 고생한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나가서 싸워야겠다”며 말하고 옛 전남도청으로 나간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다.

고층군에 거주하던 기운군의 부모를 대신해 김씨는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다녔다. 광주~화순간 너릿재터널 부근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고 인근 오물처리장, 옛 광주교도소 인근 야산 등 2박3일을 정신나간 사람처럼 뛰어다녔지만 기운군은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4일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가 너릿재 터널 인근에서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대를 걸었던 이유다.

김씨는 “37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와서 못 기다리겠느냐”며 “언젠가는 꼭 기운이를 찾아 가족들의 피맺힌 한이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5·18 당시 오빠 김옥환(당시 조대부고 2년·17세)군을 잃었던 옥란(여·51)씨는 “행불자 조사에 들어갔을 때 운이 우리 오빠가 아니라도 꼭 누군가의 유해는 발견되길 바랐다”며 “올해 유해를 찾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계속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재단의 행불자를 찾기 위한 발굴조사가 27일 서구 치평동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추정 암매장지 굴착을 끝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재단은 이날 오전 8시부터 7시간 동안 굴착기를 이용해 폭 3m·깊이 8m 규모 자전거도로 깊이 2m까지 굴착했지만 지름 20~50cm 크기 돌만 나오며 행불자 유해는 찾지 못했다.

이곳은 1980년 5월24일 새벽 계엄군

의 암매장 작업을 목격한 김영환씨의 제보 <광주일보 2017년 1월23일자 6면>한 곳으로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탐색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곳이기도 많은 기대가 있었다.

이로써 5·18재단이 지난 11월4일부터 두달여간 옛 광주교도소, 너릿재 터널, 옛 상무대 인근에서 진행했던 올해 발굴조사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간다.

재단은 여전히 암매장 당사자들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암매장 사실을 털어놓은 3공수여단 소

속 신순용 전 소령을 비롯해 김모 하사, 유모 병장 등이 5·18재단의 발굴조사 소식을 듣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내년 신 전 소령이 지목한 교도소 서쪽 담장 인근과 북쪽 담장 인근 등에서 발굴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한겨울에 들어서며 추위, 날씨 등을 고려해 자료 재검토와 추가 증언 수집 등 정비 시간을 두고 내년 2월께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며 “수많은 유가족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해를 찾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7일 5·18기념재단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5·18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조사에서도 행불자 유해는 찾지 못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어째 이런 일이...

70대 할머니 손목 끼인줄도 모르고 출발 시내버스에 20m 끌려가다 떨어져 부상

혼절했다 병원서 의식 회복

7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 승차문에 왼팔 손목이 끼여 20여 m를 끌려가다 중상을 입었다.

버스기사는 사고 지점에서 4.2km 떨어진 시내중점에 도착한 이후 1시간여 만에 경찰의 통보를 받고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광주광산경찰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모 시내버스 회사 소속 기사 정모(57)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75) 할머니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광산상수도사업소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타려고 승차문 입구에 있던 지지대를 잡았으나 갑자기 문이 닫히는 바람에 손목이 끼었다.

버스에 매달려 20m를 끌려간 A 할머니는 문에서 손목이 빠지면서 넘어

진 후 왼쪽 무릎이 버스의 뒷바퀴에 깔려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혼절한 A 할머니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할머니는 송정시장에서 장을 보기 위해 버스를 타려다 사고를 당했다.

정씨는 A 할머니가 버스 바퀴에 깔린 사실을 모른 채 다음 정류장인 대덕힐미리아파트쪽으로 우회전했고 중점인 도산동 정류장까지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A 할머니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7일 오후 2시30분께 이 버스 회사 대표, 광주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업체 사장단은 광주시청 5층 대변인실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16명 탄 여객선 마주오던 선박 피하러다 얇은 수심 바닥에 걸려 멈춰...무사 구조

여수 앞바다에서 승객 등 수십 명을 태운 여객선이 얇은 수심의 바닥에 쌓인 모래에 제동이 걸리면서 멈춰섰으나 다행히 해경에 의해 승객들이 무사히 구조됐다.

27일 오전 6시50분께 여주시 대경도 서쪽 400m 앞 해상에서 선장 김모(70)씨가 운항하던 여수선적 211t급 H호 여객선이 좌주(坐洲·배가 얇은 바닥에 걸리는 것)됐다.

승객(13명)·승무원(2명) 등 16명을 태운 H호는 여수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 여주시 남면 금오도로 향하던 길이었었는데, 바닥에 쌓인 모래밭에 선체 밑바닥이 얽히면서 오도기도 못하

는 상황이었다.

사고 지점은 대경도와 아도 사이의 너비 370m 가량의 해로(海路)로, 수심은 조수에 따라 1~4m였다. 선장 김씨는 사고 직후 뒤늦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라는 안내를 승객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김씨의 신고를 받고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 승객 등 16명을 무사히 전원 구조했다. 해경은 H호가 협수로(狹水路) 구간을 지나던 중 마주오던 대형 선박을 피하러다 수심이 얇은 구간으로 빠졌다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13년 일한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소송 주목

법원 “1500만원 지급” 중재에 대학법인 거부...본안소송 제기

10년 동안 한대에서 강의한 시간강사가 대학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 준비 시간까지 근로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P모씨에 따르면 자신은 최근 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2065만여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P씨는 대학 교양학부에서 지난 2001

년 3월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13년 6개월 동안 시간 강사로 일했다. 그는 “중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돼 체결됐기 때문에 대학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정을 거쳐 대학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학법인은 중재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측은 “채권자(P씨)는 10여년 동안 매학기 동일한 교과목을 주당 4시간 내지 10시간을 강의한 시간강사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골프 접대 받다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4배

한국관광공사 간부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받은 돈의 4배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광주지법 정용석 판사는 한국관광공사 모 지사장 A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132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전남 모 골프장에서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A씨가 직무 관련자인 골프장으로부터 부정한 접대를 받았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 판사는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과태료 금액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짜장면 먹을 자격 없다”며 여교사가 학생에 폭언·폭행 물의



○...광주지역 한 고교 여교사가 보충수업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학생에게 “짜장면 먹을 자격이 없다”

며 폭언과 함께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구의 한 고교 담임교사 A씨가 방과 후 학생들과 짜장면 회식을 하러 가던

길에 학생 B군에게 “너는 함께 짜장면 먹을 자격이 없다. 학교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정강이를 걷어차겠다는 것.

○...A씨는 해당 사건이 시교육청에 접수된 것을 안 뒤 다음날 학교에서 “교육청에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손을 들어라”고 하는 등 제보자 색출에 나서기도 해 논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NPL과 특수물건만이 정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선규 H.P 010-3605-5000